

# 중·러 국경문제 해결과정 연구\*

崔 惠 圭  
(동북아역사재단)

1. 머 리 말
2. 중소국경 문제의 제기와 제1차 변계담판
3. 진보도 사건과 제2차 변계담판
4. 제3차 변계담판과 중러 국경문제의 해결
5. 맺 음 말: 남겨진 문제

## 1. 머 리 말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조정의 역사는 영토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그동안 양국의 현안이었던 영토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 이 논문은 2005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AM0005).

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러간의 국경문제는 한일간의 그것보다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중러 국경문제는 제국주의시대와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의 해체시기의 3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제국주의시대가 국경분쟁의 맹아를 잉태한 시기라면 냉전시기는 중소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표출시기였으며 냉전의 해체 이후의 시기는 국경갈등의 조정시기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약 4,300km에 달하는 중러 국경은 1689년 중국 외교 사상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국경조약이자 중러 양국이 체결한 첫 번째 국경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기점으로 1991년 중러 동부국경획정협정까지 11차례의 국경조약을 통해 형성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의 광대한 토지가 중국의 영토임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70년 후 제정러시아는 부패한 청조(淸朝)가 내외외환의 곤경에 처해있음을 틈타 청국정부로 하여금 아이훈조약(1858년)과 북경조약(1860년)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 변화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흑룡강과 우수리강은 중국의 내륙하천에서 중러 양국의 경계가 되는 하천으로 변모하고 말았으며 이를 통해 중러간의 동부국경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다.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이 체결된 이후, 제정러시아는 중국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잠식했으며 양국은 璦琿冬季約(1886), 滿洲里界約(1911년)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잠식해 들어간 동부 변경 지역의 양 끝단이 이들 조약을 통해 확정되었다.<sup>1)</sup> 따라서 중러간의 국경문제는 역사성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중러 국경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국경획정 조약에 대한 현격한 인식상

1) 북경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청조가 러시아에 할양한 총면적은 1백 51만km<sup>2</sup>이며 한반도의 7배 반에 달하고 있다. 요컨대 근대 150년 사이 중국은 열강의 침략으로 국토 면적의 15%가 축소되었다. 吳純光, 『太平洋上的較量-當代中國의海洋戰略問題』, 今日中國出版社, 1998, p. 18.

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국경선이 역사적으로 양국간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을 통해 설정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현재 국경선이 불평등조약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약탈적인 짜르정부가 불평등조약을 통해 중국의 영토를 약 150만km<sup>2</sup>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흐루쇼프(Хрущев Н.С.)는 러시아황제나 중국의 황제나 똑같이 이웃나라에 대한 영토침탈을 해왔으며 토지의 약탈은 봉건황제들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이를 묵살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영토에 대한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영토 반환은 불가하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구도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냉전 시대의 불평등한 양국관계가 투영된 중소국경문제는 냉전의 해체 이후 대등한 양국관계를 담아내는 중러간의 선린우호조약이 체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2001년 7월 푸틴과 후진타오 간에 체결된 중러선린우호조약의 제6조에는 상호간의 영토 반환 청구권은 부재한다고 천명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양국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6월 2일 중국 외교부장 이조성(李肇星)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Лавров С.)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중러동부국경보충협정”(中俄國界東段的補充協定)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양국간의 국경획정의 긴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sup>2)</sup> 이조성은 보충협정이 체결됨으로써 4,300킬로에 달하는 국경선이 법률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선언하고, 양국간의 국경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었고 인접국간의 상호번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부여를 하였다. 따라서 중러간의 국경분쟁 조

2) 程剛·王海峰, 「中俄邊界問題徹底解決」, 『決策探索』, 第6期, 2005年, p. 88. 이 협정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최후의 분쟁지역인 우수리강과 흑룡강이 합치는 지역에 위치한 黑瞎子島와 내몽골 근방의 만주리 지역의 아바가이투(阿巴該圖洲渚) 삼각주를 포함한 375km<sup>2</sup>를 쌍방이 각각 절반씩 점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05년 6월 1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리자오싱은 러시아외상 라브로프 뿐만 아니라 인도외상과 회담을 갖고 중·인·러 외무장관간의 제4차 비공식회담에 참가했다.

정의 역사는 우호적인 양국관계의 수립만이 복잡한 변계문제를 풀어내는 선결과제임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중소 양국간에 전개된 변계담판을 3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시기별 논의의 쟁점과 문제의 해결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제1차 담판은 1964년 2월에서 8월까지, 제2차 담판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그리고 제3차는 1987년 2월부터 1991년 중소간의 동부국경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로 구분하여<sup>3)</sup>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상논리와 대응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아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이 연구가 냉전시기 분쟁상태에 있던 중소관계가 오늘날 우호협력의 관계로 이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2. 중소국경 문제의 제기와 제1차 변계담판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국경정책은 “무법회피(無法回避)” 원칙으로 집약된다. 주은래(周恩來)가 견지한 이 원칙은 변계문제로 인접국과의 관계가 긴장된다면, 문제의 제기와 해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시기가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는 신생 중국이 역대 왕조와는 달리 국위를 널리 떨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와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상존했던 상황에서 마련된 교육책이라 할 수 있었다. 신생 중국의 국경은 국경조약에 근거한 변계선, 오랫동안 형성된 전통적 관습선, 그리고 당시 중국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국경선으로 형성된 3개의 변계선으로 상호 중첩된 국가변계에 둘러싸여 있었기

3) 姜長斌 編譯, 『季列耶夫談中俄20世紀90年代勘界工作』, 『俄羅斯中亞東歐研究』, 第5期, 2005年, p. 84.

때문에<sup>4)</sup> 어떠한 변계도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소 양국의 변계문제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 양국은 사회주의 진영에 함께 위치해 있었고 국가이익이 대체로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순은 잠시 뒤로 밀려나 있었을 뿐이었다.<sup>5)</sup> 그러나 1950년대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중소간의 관계악화는 양국간의 국익충돌로 비화되면서 역사 속에 묻혀있던 변계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하였다.<sup>6)</sup> 요컨대 중소국경 문제의 대두는 양국관계가 악화 일로에 접어든 시점과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중소관계는<sup>7)</sup> 1969년 진보도에서 양국 군대간의 유혈무력 충돌로 비화된 바, 그 대립의 중심에는 국경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sup>8)</sup> 이는 중소국경 문제의 전개양상이 본질적으로 양국의 관계변화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의미했다. 비록 변경과 중앙은 지리적으로는 상호 원격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국 수뇌부와 당 중앙간의 같

4) 于淑云, 「60年代中蘇邊界談判的歷史探索」,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1卷 第3期, 2005年, p. 77. 소련 성립후 1929년 중동철도사건 당시 소련적군은 흑룡강과 우수리강이 합치는 곳에 위치한 면적 360평방킬로에 달하는 撫遠삼각주(黑瞎子島)를 점령했으며, 1944년 면적 7만 평방킬로에 달하는 唐努烏梁海 지구에 진입함으로써 중소변계상에 중러條約線, 蘇聯地圖線 그리고 實際空際線이 교차되는 복잡한 정황이 발생했다.

5) 郭力, 「中國邊界談判50年」, 『探索爭鳴』, 第2期, 2005年, p. 33.

6) 孔寒冰, 「歷史的一面鏡子-中俄邊界問題的生產及其解決過程」, 『國際政治研究』, 第1期, 1997年, pp. 17-20.

7) 중소 양국의 동맹자적인 초기관계가 과국에 이른 요인으로 소련의 대국쇼비니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을 둘러싼 이념분쟁, 타협이 불가능한 양국 지도자 모택동과 흐루쇼프의 인성론 그리고 모택동의 좌편향적인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대소일변도(對蘇一邊倒) 외교와 “사회주의 형제관계”로 표현된 불평등한 양국관계인 바, 평등한 양국관계의 복원과 독자성을 도모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양국관계 파열의 변수였다.

8)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스탈린에 대한 평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간의 관계설정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1차적 과제를 둘러싼 이념논쟁을 둘러싼 중소 양국 지도자들 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하였고 결국 양국관계 악화로 확대되었다. 孔寒冰, 「歷史的一面鏡子-中俄邊界問題的生產及其解決過程」, 『國際政治研究』, 第1期, 1997年, p. 18.

등이 곧바로 국경문제에 투영되었고, 변경에서의 대립과 충돌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양국간의 관계개선과 국경문제의 해법을 모색토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국경선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역사의 산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경의 현상을 변경하는 작업은 장기간의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 양측은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상대국을 신뢰할만한 협상파트너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 결과, 45년에 걸친 중소간의 국경문제 해결과정은 중러 양국의 관계를 21세기의 동반자 관계로 변모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중소 양국간의 국경문제는 스탈린에 대한 재평가를 둘러싸고 중소관계가 파국으로 접어들던 상황에서 중국에 파견된 소련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60년 여름 중국의 목동들이 월경하여 소련 영토 깊숙이 부즈아이그르(Буз-Ай гър: 카자흐스탄) 언덕으로 들어온 사건이 중소 국경분쟁의 시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sup>9)</sup> 최초의 중소국경 분규는 1960년 7월에 발생했다는 것이 일반론이나, 이를 둘러싼 중소 양국에서의 서술내용은 상이하다. 소련에서는 신강지역 목동들의 월경사건으로 해석하는 반면, 중국은 신강경내(新疆境內)에서 소련군이 월경하여 중국 유목민들을 구타한 사건을 제1차 중소변계사건이라 주장한다. 양국은 이와 관련하여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문제지역의 국경선 획정에 대한 상이한 시각차를 노정시켰다. 1960년 8월 17일 중국의 부외상은 소련대사 수다리코프(Н.Г. Судариков)에게 다음의 각서를 소련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당신은 중국인민과 가축들이 위치한 곳이 소련영토로 간주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중국영토로 간주하고 있다”<sup>10)</sup>는 요지였다. 수많은 중국

9) 최초의 중소국경분규는 1960년 7월에 발생했다는 것이 일반론이나, 그 내용은 중소 양국에서의 서술내용이 상이하다. 소련에서는 신강지역 목동들의 월경사건으로 해석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新疆境內에서 소련군이 월경하여 중국유목민들을 구타한 사건을 제1차 중소변계사건이라 주장한다. Прохоров А. К. Вопросы о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е. М., 1975. С. 217; 孔寒冰, 「歷史的一面鏡子-中俄邊界問題的生產及其解決過程」, 『國際政治研究』, 第1期, 1997年, p. 19.

목동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있다는 것이 부즈 아이그라 이북지역을 중국영토로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sup>11)</sup> 국제법에 입각한 소련의 영유권에 대해 중국은 역사적 귀속권을 제기하며 양국간의 국경분쟁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외교부 산하에 중소국경문제 전담부서(中蘇邊界問題辦公室)를 설치하여 소련과의 담판에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나섰다.<sup>12)</sup>

양국간의 국경문제의 핵심은 국경상의 분쟁지역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상이한 인식차에 있었다. 중국은 소련이 분쟁지역의 존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소련은 그 자체의 인정을 부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62년 봄 중소국경에는 신강지역 거주민의 상당수가 소련영토로 월경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대규모 이동은 경제적인 곤란과 중국의 빛나간 민족정책에서 비롯되었으나 중국은 이 모든 것을 소련이 도모하고 선동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 뒤를 이어 중소분쟁의 도가니 속으로 새롭게 기름을 붓는 문서상의 중상모략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소련은 우르무치의 총영사관과 굴제의 영사관을 폐쇄했고,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 우르무치 주재 소련 무역대표부가 폐쇄와 호르고스와 투르가르트 소재 소련대외무역국 직원들의 소환이 단행되었다. 중국주재 소련대표를 최소화시키려는 소련정부의 결정에 따라 1962년 9월 하얼빈과 상하이 주재 영사관, 그리고 대련과 상하이 그리고 광주 소재 대외무역국 지부가 문을 닫았고 중국철도역사인 滿洲里 주재 소련철도국 분소 역시 폐쇄되었다.<sup>13)</sup>

10)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361.

11) Прохоров А. К. Вопросы о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е. М., 1975. С. 218.

12) 郭力, 「中國邊界談判50年」, 『湖北檔案 5期』, 2005年, p. 45. 1960년 주중소련대사관 역시 중국외무성에 부즈아이그르 고개 이북 지역의 귀속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한다면, 비록 이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외교채널을 통한 우호적인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13)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362.

또한 국경문제를 통해 불거져 나온 양국간의 대치국면은 상호비방 성격의 대응논리를 동원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다. 1962년 12월 흐루시초프는 소연방회의에서 중국이 마카오와 홍콩의 회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과 인도와의 분규사태를 겪은 것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63년 3월 8일 인민일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아이훈조약, 북경조약과 일리조약은 짜르정부가 중국을 강박하여 체결한 불평등조약임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사설에서는 소련이 홍콩과 마카오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불평등조약문제 전부를 뒤엎어야만 하는데 한번에 모든 것을 정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공개질의하고 나섰다. 요컨대 러시아가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통해 중국영토를 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 보다는 불평등조약으로 빼앗긴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에 중국이 무관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1963년 9월 27일 중국외교부는 소련정부에 불평등조약문제를 정식 제기할 것임을 조회하고 나아가 11월 19일 “중소변계 전반에 토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음”을 주장하며 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sup>14)</sup> 이에 맞서 1963년 11월 21일 소련외무성은 10월 혁명 첫해에, 소비에트 정부가 제정러시아가 독자적 또는 여타 제국주의 열강과 함께 중국에 강박한 모든 불평등조약은 무효화하였고 평등과 상호주권 존중의 기반위에 중국과의 관계를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왜 이제서 중국측이 공식문서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은 “불평등조약론”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면대응과 더불어 1963년 11월 29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변계문제에 대한 소련의 기본입장을 명백히 정리한 문건을 중공중앙에 전달한 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경의 분쟁지역화를 도모한 중국의 의도를 회피하려는 것이 그 골간이었다. 소련이 모색한 회피전략의 논거는 첫째, 양국간의 국경조약은 체결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반동계층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둘째, 소련과 중국은

14) Борсов О.Б., Колосков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 1972. С. 301.

현재 모두 사회주의국가이고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는 공산주의 건설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변계문제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sup>15)</sup> 사회주의 국가소멸론을 변용한 국경소멸론이 국경문제 회피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측의 수차례에 걸친 국경협상 제안에 따라 1964년 2월 25일 북경에서 중소국경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소련측 협상대표는 차관급의 전권대표 지랴노프(П.И. Зырянов)이었고 중국측은 부외무상 증용천(曾涌泉)이었다. 중국은 국경협상의 3대원칙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3대 협상원칙이란 1) 러시아와 중국간에 최초로 체결된 네르친스크 조약(1689)은 불평등조약이 아니며 19세기 중반 이후 제정러시아가 청 정부를 강박하여 체결한 조약들은 불평등조약이다. 2) 이들 조약으로 획정된 국경과 관련하여 중국은 이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국경회담을 진행하는 기본 원칙은 기존의 조약들을 토대로 하여 조약상에서 획정된 국경선을 본국 또는 타국이 그 경계를 넘어 왔는지를 살피고 추가적으로 일부지역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점유한 영토는 반환해야만 한다. 3) 만일 국경선을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획정할 경우, 양측은 넘겨줄 것과 획득할 것 그리고 정정해야 할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과거의 불평등조약에 입각하여 획정된 국경선 전역에 대한 새롭고 완전한 획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인 정정과정을 거친 후 과거의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조약 체결의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불평등조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sup>16)</sup> 이 원칙은 소련으로부터 탈취당한 영토를 반환보다는 이를 명분으로 합리적인 새로운 국경조약을 소련과 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다.

15) 于淑云, 「60年代中蘇邊界談判的歷史探索」,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1卷 第3期, 2005年, p. 78.

16) С.Гончаров, Ли Даньхуей,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етензиях” и “неравноправных договорах” в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ифы и реальность.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4, 2004. С. 116-130.

이에 소련 측은 중소국경선을 명확하게 획정하기 위해 양국간의 협의 결과 국경조약의 초안을 마련하고 국경문제 해결절차에 관한 조약 초안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양측은 회담을 진행하며 수차례 걸쳐 각자 측량한 지도를 교환하였다. 이를 대조한 결과 중소 양국간에는 20여 곳의 분쟁지역이 있음이 드러났다. 담판을 통해 중소동부변계에 대한 협정초안이 정해졌으나 하바롭스크 인근의 대우수리도와 타라얼로프섬(중국어명: 黑瞎子島와 銀龍島)의 귀속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sup>17)</sup> 따라서 하바롭스크 근방의 2개의 섬에 대한 귀속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경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양국 대표단은 분쟁의 도서들은 괄호를 친후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된 사안에 대해 가조인하기로 합의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한 불만은 소련지도부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흐루시초프는 이 같은 형식의 협의안에 대해 불만을 터트린 바, 그는 “모든 걸 합의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합의하지 말든가”라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요컨대 하바롭스크 인근의 두개 섬이 소련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협의결과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것이었다.<sup>19)</sup> 중국측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제1차 국경담판이 시작된 6개월 뒤 1964년 8월 25일 협상은 중단되고 말았다. 소련은 1964년 10월 15일 양국간의 협상을 모스크바에서 지속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964년 7월과 10월 모택동은 일본사회당 대표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동부 변경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중소국경 담판과정에서 불평등조약론을 협상카드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7월 10일 모택동은 일본 사회당 대표단과 회담 시, “100년 전 러시아가 불평등조약을 통하여 중국영토 150만km<sup>2</sup>를 탈취하였으

17) 孔寒冰, 『歷史的一面鏡子-中俄邊界問題的生產及其解決過程』, 『國際政治研究』, 第1期, 1997年, p. 20.

18)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362.

19)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362.

나 이에 대한 정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역사적 상황과 과거의 일인 점을 감안하여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련측이 불평등조약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0)</sup> 이는 소련이 과거의 조약이 불평등조약임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정러시아가 탈취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논리였다. 모택동의 이 같은 발언은 중소국경문제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는 바, 영토의 반환보다는 “兄弟黨” 또는 “父子黨”으로 규정된 기존의 비대칭적 양국관계의 틀을 벗어나 평등한 관계에서 양국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양국간의 국경문제는 국경선의 조정보다는 소련이 중국을 대등한 동반자로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해결 가능한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는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최용건(1964년 10월 7일)과 가진 다음의 담화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택동은 최용건에게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말하기를 중국은 침략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장이다. 그 목적은 그것을 갈등국면으로 몰아가 그 덕분에 비교적 합리적인 국경조약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며 귀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일동 웃음)”<sup>21)</sup>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국경문제 처리원칙은 즉각적인 실천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는 모택동의 발언에 대해 소련지도부가 매우 긴장했으며, 소련에 대한 공식적인 영토반환 요구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8월 15일 중소변계담판 회의석상에서 중국대표단장 증용천은 “만일 소련이 재차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그들 나름의 문제해결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 모스크바에서는 이를 소련에 대한 명확한 군사위협의 표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소련은 중국지도부의 저의를 간과하지 못하고 1964년 9월 2일 이에 대해 강렬한 반응을 표출했다. 프라브다(Правда)신문은 모택

20) 趙學聰, 『中蘇邊界問題』, 『中國歷史教學參考』, 第5期, 1997年, p. 4.

21) С.Гончаров, Ли Даньхуей, 위의논문 C. 116-130.

동이 일본사회당대표에게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고 “중국의 영토요구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준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했던 것이다. 나아가 9월 15일 흐루시초프는 일본의원들과 만난자리에서 “소련영토는 역사를 통해 형성된 바, 소련의 변경은 신성하며 이를 감히 파괴할 자는 누구이며 누가 소련 민족과 인민들의 결의에 찬 반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던 것이다.<sup>22)</sup> 요컨대 소련에게 있어 국경선이 신성하듯이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로서의 지위 역시 신성불가침한 것이었다.

결국 불평등조약의 인정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소련의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소련정부는 이 조약들이 불평등한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불평등조약임을 인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국경선의 법적인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소련이 불평등조약임을 인정할 경우, 중국은 이를 통해 지금의 보증을 철회하고 탈취해간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전략적 고려도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3)</sup>

이와 관련 하여 중러간의 1차 변경담판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중시한 입장을 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소변계문제가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은 역사인식과 맞물리고, 역사적 사실 해명과 시비를 판명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국경문제 해결에 임한 중국의 핵심원칙이었다. 그 과정에서 고안된 이른바 “불평등조약론”은 강대국 소련에 맞서 기존의 국경을 변경할 수 있는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다. 중국지도자들은 중소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공유만이 국경선의 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국관계 형성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던 바, 변경문제의 해결은 역사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舊中國의 영토에서 성

22) 于淑云, 『60年代中蘇邊界談判的歷史探索』,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1卷 第3期, 2005年, p. 78.

23)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363.

립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에 의해 성립된 중국의 동부 국경을 새롭게 평등한 조약에 기반한 국경으로 대체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중국과 인접국가간에 체결한 최초의 변계조약인 중-미얀마 변계조약을 필두로 하여 중-네팔, 파키스탄, 몽골, 아프카니스탄, 북조선과 변계협정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산물이었다.<sup>24)</sup>

반면 변계담판을 진행하면서 견지한 소련의 입장은 중국과 상이했다. 제1차 담판 당시 노정된 소련의 협상 원칙은 첫째,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둘째, 새로운 조약의 체결은 기존의 조약들이 아니라 조약의 문구들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언하면 혼란스럽고 명료하지 못한 문구를 담고 있는 옛날 조약의 조문들에 기초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제까지 실효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국경선을 합법화하자는 데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소련과의 새롭게 평등한 국경조약 체결에 실패한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9차 당대회에서 소련을 ‘사회주의관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를 모태로 하여 브레즈네프와 수정주의 변절자들이 권력을 잡은 후, 소련은 더욱 사회제국주의(Социал-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사회파쇼국가로 변모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던 것이다.<sup>25)</sup> 따라서 중소간의 제1차 변계담판은 국경문제의 해결을 통한 관계개선의 기제로서 작용했다기 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국경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는 무력에 대한 호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24) 郭力, 「中國邊界談判50年」, 『探索爭鳴』, 第2期, 2005年, p. 33. 아프카니스탄과의 국경선 92킬로미터에 대한 변계협정은 체결에 10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25)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448-449.

### 3. 진보도 사건과 제2차 변계담판

1969년 3월 중소양국의 국경수비대간에 3백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보도(러시아명: 다만스키섬, Даманский остров)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1차 중소변계담판 실패의 결과였다. 그리고 동년 8월 키르키제 지역 변계지구에서 재차 무력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중소양국정부의 수뇌부는 1969년 9월 11일 변계담판 재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제2차 변계담판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차 담판에서도 국경선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던 것은 중소국경의 법적토대였던 기존의 국경조약에 대한 상이한 역사인식 때문이었다. 이는 기존의 국경조약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제1차 담판에서 중국이 불평등조약론을 제기한 것에 대응하여 제2차 변계담판에서는 소련이 중국에게 19세기 이래의 영토관련 협정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제2차 변계담판은 첫째, 상대방에게 자국의 입장과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었고, 둘째, 양국 국경 선상에 분쟁지역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만이 그 성과라 할 수 있었다.

중소 양국간의 제2차 변계담판이 시작된 계기는 다른 아닌 진보도 사건이었다. 1969년 3월 당시 진보도(러시아지명: 다만스키섬)는 행정구역상 흑룡강과 마주보고 있는 소련연해주의 포자르스키 지구에 속해 있었다. 우수리강 가운데 위치한 이 섬의 크기는 0.74km<sup>2</sup>였으며 소련측 연안에서 500미터, 중국측에서 300미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sup>26)</sup> 소련보다는 중국측 연안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이 같이 행정적으로는 소련 관할이었지만

26) Рябушкин ДС., Остров Даманский . 2 марта 1969 года.//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2004. С. 148-149.

지리적으로 중국에 인접해 있는 진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조약에서 비롯된 모순의 산물이었다. 흑룡강과 우수리강 상의 양국 국경을 확정지었던 아이훈조약(1858)과 북경조약(1860)은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하천의 중심을 경계로 삼기보다는 중국측 연안을 국경으로 획정함으로써 이들 하천에 위치한 모든 섬들이 러시아의 소관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섬의 귀속을 둘러싼 논의는 양국간의 변계담판에서 주요 현안이 되었다.

제1차 변계담판에서 중소양국은 진보도가 우수리강의 주항로(主航路)에서 중국편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할 경우, 중국측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경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섬의 법적지위는 아직 공식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중국은 새로운 조약체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섬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자신의 방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 반면, 소련은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을 결코 방관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소련의 입장은 중국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한 섬을 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양보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다만스키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섬을 이관할 경우, 이전의 모든 국경조약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국경은 조약에 의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는 소련의 입장에서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문제였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발생한 진보도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 측의 연구 성과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건의 발단의 경우, 중국측은 소련의 지속적인 “국경침범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중국측의 “의도된 도발론”을 제기한다. 요컨대 충돌의 원인 제공은 각기 상대방 측에 있다는 논지이다. 2003년에 발표된 유화(劉華)의 “珍寶島 1969”에서는 진보도 사건 3개월 전부터 양국국경에서의

충돌이 빈번해졌는데, 1968년 12월 27일 소련군 75명이 강을 건너 상륙하였고 중국측 순찰대를 구타하고 무기를 빼앗아갔으며 1969년 1~2월에 유사한 사건이 8회 발생하였음을 지적한다.<sup>27)</sup> 이에 1969년 1월 24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심양군관구에 군사투쟁 준비를 명령하였고 관련 행동지침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지침의 요지는 소련이 사격을 하면 중국은 소련측에 가장 강력한 항의를 하고 아울러 경고사격을 하며 중국측에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은 자위의 목적에서 사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에 근거하여 흑룡강성 군관구는 “진보도지구의 간섭에 반대하는 투쟁방안”을 제출하고 적 지휘소 전방에 변방기지를 조성한 후, 대대급 규모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sup>28)</sup> 요컨대 유화는 진보도 무력충돌의 단초는 소련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도(러시아 지명: 다만스키)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최근 연구에서는<sup>29)</sup> 중국의 침략성과 그에 대한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불굴의 전투력을 강조하고 있다. 논문 “다만스키섬의 1969년 3월 2일”의 저자 라부슈킨(Рябушкин)은 1950년대 말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간의 논쟁이 발생하면서 국경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만스키섬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지적하고 중국군이 사전에 이 섬에 침투하여 매복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1969년 3월 2일 새벽 약 300명의 중공군이 다만스키섬으로 침투하여 섬의 서부연안 고지대에 관목과 나무가 우거진 곳에 사전에 매복하고 있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이 충돌이 중국군의 의도된 계획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진보도 사건에 대한 평가 역시 중러 양국의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중국학자는 중소간의 진보도 무력충돌사건은 한국전쟁 이래 대규모 전면전

27) 劉華, 『珍寶島 1969(34年前的中蘇武裝衝突秘聞再現)』, 『國際展望』, 第472期, 2003年 8月, p. 8.

28) 위의 논문, pp. 8-9.

29) Д.С. Рябушкин, Остров Даманский . 2 марта 1969 года.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2004. С. 149.

으로 전화하거나 심지어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있었으나, 양국의 지도부는 전쟁일보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결국 정세를 완화시키는데 앞장섬으로써 전면전이나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이 사건이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한 원인은 중국군이 진보도 전투에서 보여준 강력한 전투 역량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소련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었지만 중국군대만은 결코 약하지 않았고 침략자(소련)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연구에서는 1969년 3월 2일 전투에서 소련군은 31명이 사망했으나 중국 측의 피해규모는 사상자가 100~150명 규모가 될 것이라 추정함으로써 소련군의 전투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랴부슈킨은 한편으로, 중국이 自衛를 명분으로 조직적으로 다만스키섬 무력충돌을 도발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대응한 결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소련측의 과오 역시 지적하는 양비론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우수리강의 작은 섬에서 발생한 양국 국경수비대간의 충돌은 중소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냉전체제 해체의 맹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강해지고 중소변계지역에서의 충돌이 지속됨으로써, 모택동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1960년대 초부터 중국의 대외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중소변계문제를 총체적 대외전략 수립에 감안함으로써 이 문제는 대미 적대관계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즉 중소분쟁을 계기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의 위협에 직면한 모택동은 기존의 “반제반수(反帝反修)” 통일전선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패권주의에 대항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69년 중소국경분쟁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중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소련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대소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정책변화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sup>30)</sup> 이는 중국이 진보도 사건을 이용하여 대미관계의 조정을 모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이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했다.<sup>31)</sup> 요컨대 모택동은 대미접근을 위해 진보도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진보도 사건이 중국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소련의 강력 대응을 촉발시킬 것으로 중국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sup>32)</sup> 진보도 사건 직후 소련은 섬 인근의 중국영토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단행함으로써 모스크바는 자신들의 단호한 결단의 가능성과 우월한 군사력을 과시했고 점차 중국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여갔다. 양국의 군사력은 결코 중국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택동은 “브레즈네프 독트린(Доктрина Брежнева)”의 실현가능성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에서는 1969년 가을부터 소련의 침공가능성을 상정한 전국민 동원령이 내

30) 李丹慧, 「1969年中蘇邊界衝突:緣起和結果」, 『當代中國史研究』, 第3期, 1996年, pp. 39-50.

31) Letter from Allen S. Whiting to Henry Kissinger, 16 August 1969, enclosing report, “Sino-Soviet Hostiliti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Source: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Project, box 839, China//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June 12, 2001: 1969년 8월 13일 홍콩주재 영사를 거쳐 미시간대학 교수로 있던 중국전문가 알렌 화이트는 키신저를 만난 자리에서 핵공격을 포함한 소련의 대규모 공격가능성이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접근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것이 중미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견해는 이후 키신저의 對中접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32) State Department cable 141208 to U.S. Consulate Hong Kong etc., 21 August 1969, Secret. Source: National Archives, SN 67-69, Pol Chicom-USSR//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June 12, 2001: 주미 소련대사관의 정보담당관인 보리스 다비도프(Boris Davydov)가 미중앙정보부의 베트남 전문가 윌리엄 스티어맨(W. Stearman)에게 소련의 대중국의 핵시설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문의한 것과 관련하여 스티어맨은 정보부 분석관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소련은 중국의 핵무기가 자국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련 역시 중국처럼 전면전을 회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려졌고 전쟁에 대비한 선전선동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이 내륙 깊숙이 이전되었고 식량 및 의료품들이 비축되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공습대피 교육과 방공시설들이 축조되면서 이른바 “북방위협론”은 굳건한 자리를 잡아갔다.<sup>33)</sup>

중국의 이 같은 위기인식은 제2차 변계담판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바, 1969년 5월 24일자 중국정부의 성명은 이를 대변하고 있었다. “중소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중국 책임이 아니지만, 중국정부는 중소변계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평화적인 담판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무력에 호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국경조약들은 러시아제국주의가 중국과 러시아 양국 인민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을 때, 체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소련인민은 여기에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진보도 사건의 여파를 진정시키려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국경의 조정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국경의 현상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담보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 조건이란 1) 쌍방은 현상유지를 보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현재의 통제선을 전진시키지 않을 것, 2) 하천을 경계로 할 경우, 쌍방의 변방군인들은 하천의 주항도(主航道)와 주하도(主河道)의 중심선(中心線)을 넘지 말아야 하며, 3) 쌍방은 충돌을 회피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에게 사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sup>34)</sup>

그러나 이에 대한 소련정부의 입장은 다분히 공세적이었다. 1969년 6월 13일 소련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1) 제정러시아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짜르정부가 비록 붕괴되었지만 그 국경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 2) 중소 양국간에는 사실상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 어디에도 소련이 변계의 현상을 파괴하거나

33)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452.

34) 于淑云, 『60年代中蘇邊界談判的歷史探索』,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1卷 第3期, 2005年, p. 79.

중국의 영토를 침략 점거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3) 유조변(柳條邊)과 장성(長城)은 중국 북부장계의 표지(北部疆界的 標志)이고 중국서부변계는 감숙성(甘肅省)과 사천성(四川省)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sup>35)</sup> 환언하면 소련은 19세기 이래 중러간에 체결된 기존의 변계협정은 평등조약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실지를 수복했거나(失地收復) 무주지를 점령(占領無主土地) 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sup>36)</sup>

국경문제에 관한 소련의 이 같은 공세적인 태도변화는 진보도 사건 직후 소련내부에서 평화협상보다는 무력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었다. 더욱이 중국측이 제기한 “불평등조약론”과 “영토반환론”과 소련측의 대응논리인 “합법적인 국제조약론”과 “무주지선점론”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양립 불가능한 논리였던 바, 양국간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키고 있었다. 이에 소련지도부에서는 선제공격의 방식으로 중국의 핵능력과 잠재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소련에 위협적인 중국의 핵무기문제를 영구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sup>37)</sup> 소련 정치국 회의 석상에서 소련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을 일거에 해소하는 원자탄진공(原子彈進攻)정책을 개진하였다.<sup>38)</sup> 반면 국방부부장 겸 총참모장은 중국에 대한 핵타격은 너무 큰 모험인 바, 두개의 원폭으로는 중국을 소멸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핵시설을 파괴하는 한정적인 핵외과수술론(核外科手術論)을 제안하였다.<sup>39)</sup> 따라서 핵공격을 상정한 소련정부의 정책은 강경

35) 위의 논문.

36) 姜長斌 編譯, 「季列耶夫談中俄20世紀90年代勘界工作」, 『俄羅斯中亞東歐研究』, 第5期, 2005年, p. 84.

37) U.S. State Department Memorandum of Conversation, “US Reaction to Soviet Destruction of Chinese Peoples Republic Nuclear Capability; Significance of Latest Sino-Soviet Border Clash,” 18 August 1969. Source: National Archives, SN 67-69, Def 12 Chicom//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June 12, 2001.

38) 于淑云, 「60年代中蘇邊界談判的歷史探索」,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1卷 第3期, 2005年, p. 79.

한 무력대응이라는 기본방침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격방식을 둘러싼 각론에는 의견대립이 드러나면서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련의 중국공격 계획에 대해 미국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미소간의 대치를 심화시킬 것”이라 결론내린 주미소련 대사의 보고는 핵공격 철회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이 문제는 내부적 의견대립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개입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소련의 강경대응 방침은 협상을 통한 현안해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졌다.<sup>40)</sup> 이에 걱정에 사로잡혀있던 소련정치국은 냉정을 찾기 시작했으며 중국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소련정부가 변경지역에 대규모 군대와 장비를 파견하여 소련의 실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외교담판을 통해 영토문제와 기타쟁점들의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정책변화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한 프랑스 외상 모리스 슈만을 통해 중소분쟁에 관한 슈만의 견해를 개진한 바, 외상은 소련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신 소련은 중국을 겁주려할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는 외상의 견해는<sup>41)</sup> 국경문제를 둘러싼 중소 양국 정

39) U.S. State Department,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fice of Asian Communist Affairs, “Implications of Sino-Soviet Developments: Meeting of June 1969, Secret. Source: National Archives, SN 67-69, Pol 32-1 Chicom-USSR//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June 12, 2001: 1969년 6월 21일 중소분쟁과 관련하여 개최된 미국무성의 중국 및 소련전문가 회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전문가들은 소련이 중국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군사행동으로 중국의 군사위협을 영구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은 옵션에 불과할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40) State Department Memorandum of Conversation, “The President’s Meeting with Foreign Minister in New York,” 19 September 1969. Source: National Archives, SN 67-69, Pol Rr-US//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June 12, 2001.

41) State Department Memorandum of Conversation, “The President’s Meeting with Foreign Minister in New York,” 19 September 1969. Source: National Archives, SN 67-69, Pol Rr-US//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June 12,

상급회담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촉진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호지명의 장례식이었다. 1969년 9월 코시긴(А.Н.Косыгин)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소련대표단이 호지명(胡志明)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있었고 중국 역시 주은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하노이에 파견되었던 것이었다. 코시긴은 중국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귀국길에 북경에 들른다고 제안했고 모택동은 숙고 끝에 결국 이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제2차 변계담판 개최에 동의한 배경에는 1) 외부환경의 안정을 통해 문화혁명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국내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과 2) 월남전과 중소분쟁을 겪으면서 남북 양방향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던 국가안전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였다.<sup>42)</sup> 소련 역시 1969년 닉슨이 취임한 후 대중관계 조정의향을 비춤으로써 중미관계 정상화를 우려하게 되었고 1968년 여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입한 사건과 1969년 중국과 분쟁을 겪음으로써 소련에게 불리한 국제여론 조성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sup>43)</sup>

1969년 9월 11일 북경공항에서 열린 코시긴과 주은래의 회담은 국경분쟁을 겪은 양국이 변계문제에 대한 회담재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코시긴은 양국관료들이 1년간 씨름할 문제를 양국지도자들이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간의 갈등수준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양국간의 갈등을 초래한 모든 문제점들은 얼핏 보기에 해결 불가능해 보이지만 크게 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것인 바, 모든 불화를 한데 묶어서 우수리강이든 아무르강이든 그곳에 던져버리자고 제의했다. 당연히 노획한 정치가인 코시긴은 문제를 의도적으로 단순화시킴으로

2001.

42) 李艷紅, 「中蘇關係與中蘇援越格局的演變(1956-1975)」, 『西華師範大學學報(哲社版)』, 2004年, 第3期, pp. 135-139.

43) 于淑云, 「60年代中蘇邊界談判的歷史探索」,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31卷 第3期, 2005年, p. 80.

써 다른 한편으로 중국지도자들의 의중을 떠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는 중소 양국관계의 파열의 진정한 원인과 그 심각성에 대해 소련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하였다.<sup>44)</sup>

소련지도부에게 코시긴과 주은래의 회동의 주요목적은 국경협상 재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회동자체를 성사시키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었다. 북경공항 회담은 명분에 불과한 바, 소련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출발할 때 국경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음이 이를 입증했다. 코시긴을 수행한 중국담당 부외장 카피짜(М.С.Капица)가 주은래와의 회동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하노이에서 귀향하는 길에 기착한 두산베(Душанбе)에서였다. 두산베에서 이륙하여 모스크바가 아니라 북경으로 갈 것임을 통보한 후, 코시긴은 주은래와 만나 어떤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를 수행보좌관들에게 물었던 것이다. 국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답변을 들은 코시긴은 여기에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논의도 하지 않았다. 사절단은 어떠한 자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시긴 역시 주은래와의 회담에 대한 의제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만남 그 자체였고 모스크바에서는 회동의 결과가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sup>45)</sup> 요컨대 소련은 국경문제의 해법이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경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개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반면 주은래는 다분히 냉정하게 대처했다. 그는 중소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던 코시긴과는 달리 국경문제라는 좁은 틀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주은래와 코시긴은 가장 중요한 2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첫째, 양국변계 문제는 반드시 새롭게 다시 담판을 시작해야 하며 변계

44)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472.

45)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473.

선은 더욱 명확하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둘째, 양국은 즉시 무장충돌을 중지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주은래는 쌍방이 변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양측이 공동으로 임시조치 마련을 제의한 바 1) 변계의 현상유지, 2) 분쟁지구에서 양측 무장병력간의 충돌 금지가 그것이었다. 이 같은 처리방안에 대해 코시긴이 동의를 표했고, 향후 대사급 수준으로 격상된 국경회담의 재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sup>46)</sup>

그러나 이 같은 합의의 이면에는 제2차 변계회담이 진정한 국경문제의 해결보다는 진보도 사건 이후 전면전의 위기로 치달았던 양국관계를 완화시키려는 미봉책의 성격이 강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특히 소련측의 협상태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위에서 언급한 코시긴의 협상태도 뿐만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 이어진 일련의 회담에서도 소련은 무력충돌 방지대책 마련에만 급급했을 뿐 대등한 관계 하에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69년 10월 19일 소련대표단이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북경에서 재개된 협상에서 상호불가침의 의무를 제의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나아가 이 의무조항은 국경의 현상유지에 관한 임시협약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양측 고위급 수준 국제적 특별협약 체결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요컨대 소련정부가 제안한 무력충돌 방지대책은 국경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국경의 현상유지를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한 것이었다. 1970년 7월 소련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사용 금지, 비방전의 중지 그리고 상호불가침에 관한 국

46)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ate of Intelligence,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Sino-Soviet Border Talks: Problems and Prospects," 10 November 1969, Secret. Source: CIA FOIA releas to National Security Archive//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June 12, 2001; "중소국경회담의 문제와 전망"이라는 CIA보고서에 따르면, 코시긴과 주은래의 회담이후 양국은 대사급 수준에서 국경논의를 하는데 합의했고 중국은 소련으로 하여금 기존의 국경조약을 불평등조약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한 바, 이는 중국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제협약 초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제의하고 1971년 1월 15일 소련측의 협상 초안이 중국에 전달된 것도 이 같은 계획의 산물이었던 것이다.<sup>47)</sup>

그러나 중소관계의 복원과 무력사용 중단을 통해 국경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소련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소련이 변경의 현상유지를 위한 방책으로 무력충돌 방지 장치를 모색했다면, 중국은 현상의 변경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경문제를 쟁점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북경정부는 국경에서의 무력사용 금지 규정을 개별조약을 통해 현상을 고착화시키기 보다는 이를 국경담판을 위한 “임시대책”으로 수정하여 협정서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협약서 조문에 “분쟁지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소국경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중국측의 이 같은 제안은 소련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소련위협론”을 선전하고 있는 중국지도자들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분쟁지역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무력사용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국경의 현상을 유지하고자한 소련의 협상방침과 분쟁지역의 존재를 쟁점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려는 중국의 협상원칙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2차 변계담판 역시 국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채, 기존의 양국국경은 당분간 현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결국 진보도 사건의 여파를 무마하기 위한 주은래와 코시긴의 북경공방 회담은 국제 외교관계를 깬 비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경문제의 해법을 산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양국관계 진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양국 수뇌회담은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국면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양국대표들이 새롭게 변계담판을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70년 10월에서 11월까지 양국의 신임대사들이 각각의 임지에 도착함으로써 1967년 이래 대변인급으로 격하된 양국관계는 종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경문제는 양국관계 증진에 여전히 아킬

47)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473.

레스건으로 남아있었고 중국이 여전히 국경의 현상변경에 집착하는 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 당사자는 소련이었다.

#### 4. 제3차 변계담판과 중러 국경문제의 해결

국경문제를 미궁에서 끌어낼 아리아드네의 실마리(thread of Ariadne)를 찾아낸 사람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 고르바초프(М.С. Горбачев)였다. 그가 국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된 계기는 1989년 5월 16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등소평과의 정상회담인 바, 이는 지난 30년간 단절되었던 중소 양국 최고 지도자간의 대화재개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sup>48)</sup> 양국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킨 이 역사적 만남은 한편으로 지난 40년간의 양국관계를 규정해온 이념의 시대가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實利)의 시대로 전환되는 분수령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국경문제 역시 실용의 차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이는 양국관계의 정상화야 말로 국경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임을 입증하고 있었다. 요컨대 국경문제는 조약문의 해석이나 역사적 근거의 추적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접근에 해법의 열쇠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국면전환의 배경<sup>49)</sup>에는 양국지도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던 신사고정책과 실용주의 정책이 있었다. 중국측의 대소 입장변화의 원인은

48) 陳小汎, 『鄧小平外交思想與中蘇關係正常化』, 『東歐中亞研究』, 第5期, 1999年, pp. 18-19.

49) 1979년 4월 3일 중국은 1950년에 체결된 30년 기한의 상호원조조약의 갱신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언하고 양국간의 미결사안을 해결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1979년 7월 4일 소련외무성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협상의 단초가 열렸다. 1979년 9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부외상급 회담에서 소련측은 중소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선언문은 모든 영역에 걸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히는 것이었다(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589-590).

기존의 대소투쟁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연대 전략이 결코 유효한 것이 아니었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1) 미·일·유럽국가와의 연대를 통한 대소봉쇄노선은 세계적 규모의 전쟁가능성을 고조시켰으며, 2) 중국의 근대화는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과 직결되었으나 소련과의 적대관계는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았고, 3) 소련과의 세계적 규모의 전쟁 가능성은 군비증강을 요구하여 중국의 개혁정책을 지연시키며, 4) 대소 적대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위한 공통분모였으나, 자본주의국가들은 중국의 대소봉쇄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반소전선의 침병으로 이용하고자 하였고, 5) 미국과의 관계개선 역시 대만문제 해결에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던 것이다. 중미외교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지 4달이 안되어 대만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 이를 증명했다. 결국 12차 전당대회에서 중국은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대외노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1982년 12월 4일 중국 신헌법에 이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sup>50)</sup>

대소관계의 틀을 새롭게 짜려는 중국의 계획은 모스크바에서도 감지되었고 소련지도자들의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2차 전당대회가 종료된 지 보름 만에 1982년 9월 26일 브레즈네프는 바쿠(Baku)에서 “중소관계의 정상화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이에 중소 양국은 부외상급 정치협상의 재개에 합의하고 1982년 10월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국이 소련에게 요구한 3대 전제조건이 협상의 장애물이 된 바, 1) 소련의 베트남 지원 중단과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의 철병을 후자에게 강제할 것, 2) 소련군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3) 중소국경에서 소련군의 감축과 몽골주둔 군사지원단 철수가 그것이었다. 따라서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양국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 주는데 그치고 말았다.<sup>51)</sup>

50)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592-593.

51)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593.

그러나 1985년 3월 10일 54세의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중소관계는 극적인 변화가 예견되었다. 체르넨코(Черненко К.У.) 사후 2일 뒤 총서기가 된 그는 중소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3월 13일 체르넨코 장례식에 참석한 중국의 이붕(李鵬) 총리에게 양국관계 개선 의향을 피력했던 것이다. 등소평 역시 1982년부터 경제적 인적 교류는 활발해졌으나 3대장애가 해소되지 않아 양국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었다. 그는 기존의 미소관계가 공세적인 소련과 방어적인 미국(蘇攻美守)의 형세에서 미국의 공세와 소련의 방어(美攻蘇守) 관계로 변화했으며 세계대전은 회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화두는 평화와 개발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sup>52)</sup>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노선과 등소평의 실용노선은 실리의 측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양국관계 개선 시도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86년 7월 28일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은 중소국경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는 소련의 아태지역 정책에 대해 연설하면서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희망을 피력했고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련은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중국과 어떠한 수준에서라도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보충조치에 관한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 소련은 흑룡강 주항도(黑龍江 主航道)가 중소분계의 정식 국경선이 되기를 희망하며 몽골 지도자와 더불어 소련군의 몽골철병에 대한 연구를 할 것과 1989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6개 사단 철군 등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sup>53)</sup> 나아가 고르바초프는 중국 측의 담판조건보다 한발 앞선 고려를 하고 있었다. 1988년 9월 16일 그는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은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지지하며 양국 고위회담을 준비

52) 陳小汎, 「鄧小平外交思想與中蘇關係正常化」, 『東歐中亞研究』, 第5期, 1999年, pp. 16-18; 陳繼安·劉金田, 「一分零三十秒的握手-中蘇關係實現正常化始末」, pp. 4-5.

53) 1987년 소련은 몽골에서 자동화기 부대를 철수하고 주둔군의 3/4을 철수하였으며 1988년 12월까지 아시아주둔군 20만 명을 감축했다.

하는데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이 같은 관계개선 시도에 대해 등소평은 캄보디아에 대한 소련의 입장변화를 확인하고 양국간의 외상급 회담이 개최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그는 20년 전 주은래가 확정한 담판방침을 재차 선언한 바, 역사와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있는 조약을 기초로 하여 변계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고르바초프의 메시지에 화답했던 것이다. 따라서 1988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전기침(錢其針)과 세바르드나제(Э.А. Шеварднадзе) 외상간의 회담은 이 같은 양국 지도자들간의 정책변화의 산물인 바, 1957년 이래 30년 만에 개최된 외상급 회담이었다. 그 결과 1989년 2월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북경 방문을 계기로 양국수뇌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고 1989년 9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대의 전면철수를 선언한 베트남의 결정을 중소 양국이 수락하기로 공동선언하였다.<sup>54)</sup> 이는 등소평이 제기한 중소관계 정상화로 향한 길목에 놓인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를 지녔다.

1989년 5월 15~18일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은 이 같은 지난한 과정의 결실이었으며 유혈사태로 치달았던 국경문제 해결의 전기가 되었다. 5월 16일에 열린 고르바초프와 등소평간의 회담은 국경문제가 대립과 충돌로 점철되었던 양국관계를 투명한 축소판에 다름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바, 국경문제의 해법은 양국관계 정상화에 있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등소평은 러시아가 불평등조약에 의거하여 150만km<sup>2</sup>를 중국으로부터 탈취했다는 모택동의 주장을 반복한 뒤, 중소관계의 파열 역시 이념대립이 아니라 불평등에 문제의 본질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이를 매우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르바초프 역시 중국에 대한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등소평과 고르바초프의 이 같은 언급은 관계정상화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과

54)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600-601.

거 양국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갔던 “불평등조약론”과 “국경문제부재론”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레토릭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양립 불가능해보이던 “불평등조약론”과 “국경문제부재론”의 논리가 실용주의에 수렴되어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등소평의 제의와 국경문제에 종지부를 찍자는 고르바초프의 제안으로 변용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양국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역사의 계산서는 제시되었으며, 과거의 모든 문제는 없었던 일로 하는데 있었다”고 평가한 등소평의 결론은 중소국경문제의 본질과 그 전망을 투영하고 있었다.<sup>55)</sup>

따라서 양국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된 제3차 변계담판은 양국이 특정한 선결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양국관계가 부단히 개선된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1991년 5월 16일 마침내 중소동부국경협정의 체결로 귀결될 수 있었다. 1991년 5월 16일 양국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이 협정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 시 합의사항에 따라 준비되었으며, 국제법 원칙을 고려하여 19세기 러시아와 중국간에 체결된 국경조약의 부분적인 개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sup>56)</sup> 그러나 중소관계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신사교”정책이 반영되어있는 이 협정은 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댄 인접국인 중국에 영토 및 전략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성사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중소국경은 몽골 동쪽에서 북한과의 국경인 두만강에 이르는 총연장 4,195.22km의 동부국경과 몽골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서부국경 54.57km로 구성되었고 동부국경 가운데 3,547.01km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지리적 특성이

55) Кулик Б.Т.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й раскол: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М, 2000. С. 601-605.

56) 姜長斌 編譯, 「季列耶夫談 中俄20世紀90年代勘界工作」, 『俄羅斯中亞東歐研究』, 第5期, 2005年, pp. 87-88. 감계사업에는 양국에서 각각 1,5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육지와 하천상에 1,183개의 정계비가 세워졌고 흥개호(러시아명: Ханка湖)상에는 24개의 부표를 띄웠다. 그리고 동부국경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정부는 1992년 8월 10일과 1993년 5월 5일 2가지의 규정을 만들고, “중러공동국경획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러시아대표단이 1991년 협정을 준수하며 1997년까지 국경획정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서면 제출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있다.<sup>57)</sup> 하천경계는 중러간의 국경선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기에 국경획정을 담당한 양국 공동감계위원회는 특별히 이 문제를 중시하였다.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상의 도서귀속은 이제까지 조약상의 명분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경획정작업은 아무르와 우수리강과 같은 하천의 경우, 수로 측량과 병행되어야 하는 바 1991년 협정과 국제법에 따르면 하천의 중심수로와 중심수로의 중앙이 국경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하상의 여러 도서들의 귀속문제도 이에 좌우된다. 중러공동국경획정위원회에 참여한 러시아측 대표단장을 역임한 키레예프(Г.В. Киреев)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협정에 근거한 하상 도서의 분할 결과 총면적 700평방킬로에 달하는 700개의 섬을 중국에 양보해야만 했다. 그 결과 1991년 협정은 19세기에 체결된 양국간의 국경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 협정을 근거로 국경 조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실상의 국경 재획정 조약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이 조약은 중국에 대한 러시아영토의 양보가 그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sup>58)</sup> 이와 관련하여 “약 10~20년 간 우리는 약세인 바, 국경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러시아의회 대외문제위원회 의장 루킨(В. Лукин)의 견해는<sup>59)</sup> 중러국경협정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1987년부터 재개된 3차 변계회담은 동부국경(東段)의 경우, 1991년 협정의 체결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고 서부(西段)의 경우, 소련의 와해이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접경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으나 4개국과의 지속적인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57) Б.И. Ткаченко, Россия-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 60. 동부국경의 육상국경은 578,57km이며 한카(Ханка) 호수상의 국경은 70,03km이다.

58) Б.И. Ткаченко, Россия-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 285ю. 약 1500헥타르에 해당되는 토지는 1991년 협정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중국 측에 이양되었다.

59) Б.И. Ткаченко, Россия-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 292.

1999년 8월 타지키스탄과 부분적인 쟁의지구인 파미르 지구를 제외한 서북 변계를 확정지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4일 중러 동부변계보충조약(東部邊界補充條約)을 체결함으로써 현안이었던 1964년 제1차 변계담판에서 미결사안이었던 하바롭스크 인근의 흑할자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러국경 전반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졌다.<sup>60)</sup>

## 5. 맺음 말: 남겨진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국경문제는 역사문제에서 비롯되지만 최종적으로 정치 문제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중러 국경 문제 해결과정은 국경분쟁이 영토의 침탈과 반환이라는 영토문제 자체의 쟁점보다는 오히려 중소 양국의 정치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와 보다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중국지도부가 제기한 “불평등조약론”과 “영토청구론”이 소련으로부터 탈취당한 영토를 반환받기 보다는 이를 명분으로 소련과 합리적인 새로운 국경조약 체결을 기대한다는 주은래의 대소협상 3대 지침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따라서 양국관계와 국경문제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은 중소 국경문제가 1969년 진보도(珍寶島)에서 양국 국경수비대간의 유혈무력충돌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푸틴과 후진타오(胡錦濤)가 “양국사이에 는 더 이상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러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한 논리적 모순을 이해하는 유효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양국의 변계담판의 역사는 국경문제의 제기, 심화, 그리고 해결의 3시기를 거치고 있다. 제1기는 “불평등조약론”과 “영토반환론”으로 무장한 중국의 변계담판논리는 “합법적인 국제조약론”을 내세운 소

60) 姜長斌 編譯, 『季列耶夫談 中俄20世紀90年代勘界工作』, 『俄羅斯中亞東歐研究』, 第5期, 2005年, p. 84.

련의 대응논리와 충돌한 의견상 역사와 이론의 각축이었지만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인 양국관계의 시정을 요구한 중국측의 문제제기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제2기는 진보도 무장충돌 사건을 겪으면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면전 발발의 위기를 겪은 후, 국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69년부터 10년간 지속되었다. 제2차 변계담판 역시 “불평등 조약론과 합법적조약론”, “영토반환론과 무주지점령론”이라는 기존의 양국의 변계담판 논리가 양립 불가능한 것임을 재확인한 자리에 불과했으며 국경문제의 해결보다는 제2의 진보도 사건 재발 방지가 실질적인 담판 목적이 되었다. 제3기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에 따른 소련측의 새로운 양국관계의 정립시도가 평행선을 그어오던 국경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리고 소련의 와해와 냉전의 해체와 맞물려 양국의 국경문제가 타결국면으로 들어섰다. 1991년 중러동부국경협정과 1994년 서부국경협정의 체결로 양국은 기존의 국경선을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소련의 양보가 그 배경이 되었다. 소련의 양보를 바탕으로 2001년에 체결된 중러우호조약에서 양국은 더 이상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정치적인 신뢰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양국간의 새로운 국경협정이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중러동부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원동지방에서는 이 협정에 대한 반발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중러간의 동부국경협정에 대해 러시아 학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정치, 경제,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1991년 협정은 1860년 북경조약과 1861년 6월 16일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의 조문을 위배하는 것이었다. 이는 북경조약 제1조에 “국경의 경계표식 설치 후, 양국의 국경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sup>61)</sup> 이에 러시아영토를 중국에

61) Б.И. Ткаченко, Россия-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Владивосток.

이양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조만간 두만강 하구에 항구를 건설할 것인 바, 이는 중러 양국간의 물류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수출입 화물의 물류이동 경로가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베리아와 아무르철도에 심각한 손실을 끼쳐 연해주남부에 위치한 러시아 항구들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셋째, 심정적으로 중국에 이양될 하산호 인근지역과 우수리강의 진보도(다만스키섬)는 러시아의 역사와 관련되어 이곳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곳인 바, 역사적 성지에 대한 양보는 현지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sup>62)</sup>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경우, 국경문제의 속성상 양국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경조정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러 국경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6. 9. 25,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중러국경담판, 중소국경분쟁, 진보도 사건, 불평등조약, 중러우호협력 조약

1999. C. 18-28. 트카첸코는 국토를 인접국에 넘겨주는 것은 해당국가의 영토보존을 손상시키고 특정상황에서는 영토를 넘겨준 외무성관리 및 관계자들을 “국익을 배신한 자들”이라 규정하고 있다.

62) Б.И. Ткаченко, Россия-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 316-318.

<ABSTRACT>

## On the Settlement of the Border Conflict Between Russia and China

Choi, Deok-kyu

China and Russia reached the final agreement in 2005 over their eastern border, putting an end to 40 years of negotiation. They exchanged ratification documents by their parliaments agreeing to share around fifty-fifty the last disputed land. China and Russia share a 4300-kilometer-long border. Peaceful settlement of the border issue was a great achievement that all disputes between the two neighbors regarding the border issue were in history. By solving the border issue through peaceful consultation, Russia and China have set a good example for other countries in setting similar disputes.

This article is aimed at demonstrat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border issue was resulted in the normalization of politic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The inconsistent claim by China that its former land which had been seized by Zsar Russia should be restored, was actually a propaganda for altering its asymmetrical relationship with Russia. This perspective provides effective explanation of China's declaration that it had no more territorial problem with Soviet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Sino-Soviet "Good Neighbor Treaty", despite their long history of border disputes. In other words,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s were not about territory but rather the different their political relations.

Yet Russians remain suspicious of China's longer term intentions.

Chinese historians continue to denounce the current borders as unfair and imposed on China by Russia in the 19th century, and Chinese children are still being taught in school that Russia took away the Far East from China by force. In conclusion, paying due regard to altering of the Russo-Chinese relationship, we must watch attentively the border issue.

Key Words : The Sino-Soviet Relations,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 Zhenbao Island, Unequal Treaty, Border Dispute

K C I